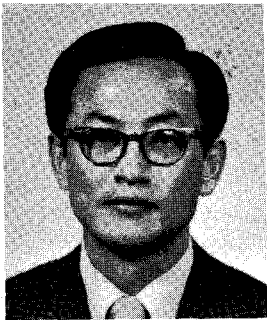


계열화체제
 도입으로
 유통경로
 재편성해야
 한다



尹 孝 稷
 (건국대학교 축산대학교수)

I. 서 론

유통이란 마치 저수지의 물이 수로를 따라
 논에 흘러들어가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통구조의 근대화란 적당한 량의
 물이 신속하게 그리고 넓은 지역에 고르게 흐
 르게 하는 것이다.

광대한 지역에서 조그마한 물줄기들이 한
 데 모이며 못을 이루고 그 못에서 흐르는 물
 이 깊고 낮은 논에 물을 매우면서 흘러가는
 과정이 이른바 축산물유통과정이다. 이 물
 의 흐름을 알맞고 빠르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대의 높고 낮음이 있어야 하고 이에 부수
 하여 수문과 수로 모터펌프 파이프라인이 그
 기능을 보조한다.

그러므로 양계산물의 유통량을 많이 그리
 고 신선하고 신속하게 하자면 자연 이들 가
 격의 높고 낮음이 있어야 하고 흐르는 그 과
 정마다 그 기능을 담당하는 유통부서가 있어
 야 한다. 그런데 못에 있는 물을 논에 연결
 하는 수로나 각종 부대시설이 그 기능을 제
 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홍수나 물기근이
 발생하듯이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맡은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수급 불균형
 으로 인한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발생한다.

경제가 발달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이 강화
 될수록 유통의 기능과 중요성은 비례하여 확
 대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다

소비수요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에 신속
 하고 충분한 물량을 적절히 배분하고 소비수
 요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생산규모는 시
 시각각으로 조정하도록 생산자에 수요의 변
 동추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유통조직의
 역할이며 그 기능이다.

양계산물의 가격구조에 있어서 적당한 높
 고 낮음이 있어야 하고 이들 유통방법에 있
 어서 적절한 전달기능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
 리고 중간유통업자 모두를 위하는 길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양계산물의 유통에 있어서는 유통경로가 너무나 영세하고 복잡하고 이들 가격구조가 불건전하여 가격의 폭락과 폭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속출하고 있어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1980년대의 유통방향을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

1980년대를 위한 유통구조 및 가격 구조의 제시는 양계산물의 유통합리화의 속도를 보다 빨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생산자 유통업자의 의사결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II. 1980년대의 양계산물 유통구조

물량적인 생산증가는 기술이나 자연조건에 달려있지만 양계농가가 목표로 하는 양계소득이나 이윤의 증대는 유통구조에 의하여 판정된다. 왜냐하면 양계산물의 가격과 투입물의 가격은 유통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론적 귀결에서 볼 때 유통의 근대화 없이 생산의 근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더우기 유통구조란 그 시대 그 지역의 생산소비구조에 대응하여 계속 변화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국민소득이 1,000불 수준을 넘어서고 소비패턴이 곡물위주에서 축산물로 서서히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에따른 대량 신속한 거래를 촉진하는 유통구조의 개선은 미래유통구조의 개선방향설정에 하나의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양계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대량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통구조는 전근대적인 유통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생산물의 흐름(Flow)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

으므로 80년대를 향한 유통구조의 개선 방향의 설정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연결하는 적절한 Pipe Line을 설치하여 생산물의 흐름을 원활하고 신속히 하며 생산된 양계산물을 적정가격으로 최종 소비자의 수요에 충족시키는 반면 생산자에게도 유리한 수취 가격을 보장하여 생산을 계속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늘날 계육과 계란의 유통과정은 지역별 농가별로 서로 다르며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육계는 대체적으로 생산자→수집상→도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데 생산자→도매상→일반소비자 및 음식점이 주된 유통경로를 이루고 있으며 그외에도 생산자→행상→음식점의 유통경로와 그밖에 농협을 통해 균납하는 경로가 있다.

한편 계란의 유통경로는 계육에 비해 더욱 다원화되어 있다. 그 양상을 보면 생산자→반출상→소매상→소비자의 유통경로와 생산자→지역수집상→도매상→소비자의 유통경로 및 생산자→행상→소매상→소비자 의 세가지 경로가 주된 유통경로이며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농협을 통한 유통경로가 있다.

이와같이 계육과 계란의 유통경로는 복잡하고 다원화 및 다단계화되어 있어 유통마진이 높지 않을 수 없고 계육뿐만 아니라 계육역시 목측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전근대적인 거래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많은 마진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짙다.

또한 가격구조에 있어서도 생산농민이 공산품마냥 주체적으로 가격을 결정(Price Determination)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진 종진 시장의 수급조건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른바 가격을 발견(Price Discovery)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더우기 생산물물 판매하는 농민은 완전경쟁상태에 놓여 있고 생

표 1. 주요축산물 품목별 1인당 및 국내 수요예측량

년 도	쇠 고 기		돼 지 고 기		닭 고 기		계 란		우 유	
	1인당 수요량	국 내 수 요	1인당 수요량	국 내 수 요	1인당 수요량	국 내 수 요	1인당 수요량	국 내 수 요	1인당 수요량	국 내 수 요
	g	M/T	g	M/T	g	M/T	개	백만개	g	M/T
1978	2,595	95,968	3,721	137,610	2,030	75,073	119	4,401	7,903	292,269
1979	2,840	106,661	3,951	148,372	2,166	81,340	131	4,919	9,060	340,230
1980	3,109	118,571	4,216	160,790	2,302	87,794	145	5,530	10,257	391,181
1981	3,411	132,132	4,485	173,735	2,445	94,712	160	6,198	11,510	445,863
1982	3,738	147,102	4,777	187,989	2,597	102,200	176	6,926	12,783	503,049
1983	4,098	163,867	5,111	204,374	2,751	110,004	194	7,757	14,704	587,969
1984	4,496	182,708	5,459	221,843	2,915	118,460	213	8,656	15,364	624,362
1985	4,938	203,939	5,828	240,696	3,085	127,411	235	9,706	17,246	712,260
1986	5,411	227,083	6,208	260,531	3,257	136,686	257	10,786	18,347	769,969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산물을 구입하는 상인은 독점적 경쟁 (Monopolistic Competition) 및 구매과점 (Coligopsony) 상태하에 놓이게 되므로 언제나 거래에 있어서 농민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생산의 자체조절장치가 없으므로 전년도의 가격조건이 양호하여 소득과 이윤을 얻었다면 금년도에 생산을 더 늘리게 되어 과잉생산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양계산물의 생산 자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유통구조면에서나 가격구조면에서나 생산면에서 언제나 불리한 입장에 놓여 왔으므로 양계업을 하나의 투기업으로 여겨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80년대에 있어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닭고기와 계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제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80년대를 위한 유통구조 및 가격구조에 대한 Model(模型)을 제시하여 생산과 유통의 근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78년의 1인당 닭고기 수요량은 2,030gr이고 국내 총수요량은 75,073M/T이며 계란은 1인당 수요량이 119개인데 국내 총수요량은 4,401백만개이다. 그런데 1986년에 가서는 닭고기 1인당 수요량이 3,257gr이고 총 수요량은 136,686M/T이며, 계란은 각각 257개와 10,786백만개로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정가격의 형성을 통한 증산은 물론 증산된 양계산물을 소비자의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리하여 먼저 적정가격의 형성을 위하여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양계는 전년도의 가격조건이 양호하면 생산을 대폭적으로 늘려 과잉생산을 야기시켜 가격을 폭락케 하고 다음 해에는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축소시켜 가격을 폭등케 하는 모순을 지양하기 위하여 생산자 스스로가 생산량을 조절케 하는 생산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생산자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생산조절기구는 선진제국에서 볼 수 있는바 호

주의 Egg Board(애그 브로드)와 Broiler Board(브로일러 보오드) 및 미국의 Egg Board와 Broiler Council(브로일러 카운실)과 같은 기구를 우리나라에도 설치하여 생산 조절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과잉생산에서 오는 경위적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계생산을 통합화(Integration)하여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통합적 생산체제는 생산부분과 가공 및 유통부분을 직결시킴으로써 생산과 잉여로 인한 생산물의 체화를 방지함은 물론 생산조절을 가능케 하여 생산자의 적정이익을 보장시켜 줌으로써 생산의 안정화를 가져 오고 계절적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최신의 사양관리 사육기술을 도입 이용함으로써 생산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양계산물의 수집, 운반, 가공을 대규모화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을 조직화하고 비축과 가공으로 제품을 다양화시켜 소비촉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같이 닭고기 및 계란을 적정 가격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적응시키는 반면 최소의 비용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양계농가에는 유리한 수취가격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통합적 생산체제와 Egg Board나 Broiler Council과 같은 기구가 1980년대는 필히 설치되어 양계업을 안정된 생산기반 위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양계산물의 시장구조도 현재와 같이 상인만이 거래교섭에 있어 언제나 강자의 입장에 서고 생산자는 언제나 불리한 입장에 서게되는 모순을 1980년대는 시정토록 해야 한다.

오늘날 닭고기 거래에 있어서는 도산매 및 소매상이 가격과 등급을 좌우하며 과다한 상업이익을 수취하므로써 유통마진을 크게 하여 닭고기의 소매가격을 높여 닭고기의 소비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계란의 경우도 소수의 도

매상이 계란가격을 조작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의 불공정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지에 도계장 및 계란선별포장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생계는 도계장에 집결되어 여기서 생계는 도계처리하여 등급화하고 경매를 통하여 매매가 형성토록 해야 하며 계란의 경우도 모든 계란이 계란선별포장센터에 집결토록 하여 여기서 선별 등급화하고 경매를 통하여 매매를 성립 시킴으로써 파는 생산자와 이를 구입하는 상인, 모두가 완전경쟁상태 하에서 평등한 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환언하면 오늘날 생산자는 완전경쟁상태이고 계란 및 닭고기를 구입하는 상인은 과점(Oligopsony)상태에 있는 시장구조를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도계장과 계란선별센터내에 경매를 할 수 있는 중앙도매시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장구조의 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생계유통체제를 도계유통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시장내에 산재하고 있는 생계상인(도산매상)이 생산농가에서 생계를 수집하여 이를 도계하여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유통체제하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보호될 수 없고 이들 생계상인만이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1980년대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여 대규모도계장에서만 도계하여 판매하는 유통체제를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1980년대에는 양계산물의 가격안정기금의 과감한 조성 및 운영 및 공급과잉시 이를 비축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확보와 보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와같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정부는 물론 양계협회는 이러한 시장정보기능을 강화하여 생산규모의 확대를 생산자 스스로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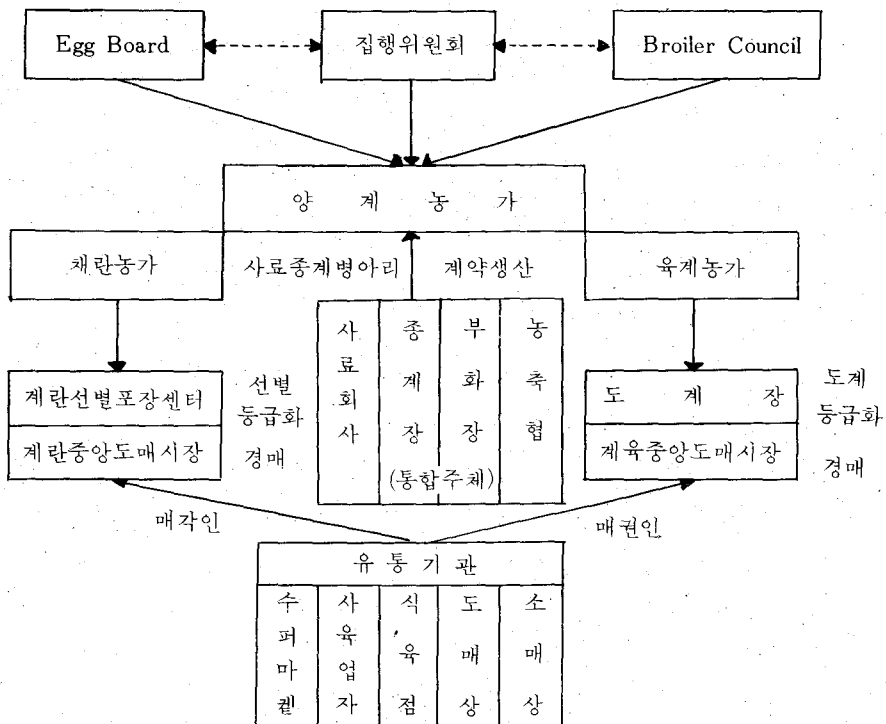
그렇다면 상기한 바와 같은 유통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통경로의 재편성이 불가피한바 이 1980년대의 계육과 계란의 유통구조는 그림 1과 같이 통합화 및 Egg Board나 Broiler Council를 전제로 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서 Egg Board나 Broiler Council 수급조절은 물론 생산자와 통합주체간의 계약 이행과정에도 적극개입해야 하며 가격을 안정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히 보호토록 해야한다. 물론 통합화의 주체(Integrator)는 축산에

관련된 기업이나 축협이 되어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통합화의 주체는 사료와 병아리 및 생산자재를 공급해야 하며 이때 사육자에게 공급한 생산자재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경영과 판매는 상호 협의하에 하되, 생산물의 가격에 있어 시장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라 배분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공동부담하는 이윤분배형을 통합화의 방법으로 채택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1960년대 이후 미국 잉여농산물의 순조로운 도입에 의한 사료의 저렴한 공급 및 우수한 외국종계의 도입으로 타축

그림 1. 1980년대의 계란과 닭고기의 유통구조



산부문보다 앞서 급속한 성장을 하여 왔다.

그러나 유통구조는 아직도 낙후성을 면하지 못한채 전근대적인 유통방법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생산과 유통에는 커다란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물위주의 식품소비형태가 서서히 축산물로 전환되고 1980년대에는 양계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알맞는 유통구조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앞으로 증산될 계육 및 계란을 적정가격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충족시키는 반면 최소의 비용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양계 농가에 유리한 수취가격을 보장하며 증산을 위한 유인(誘引)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유통 구조의 구축은 1980년대 우리나라 양계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그러므로 1980년대의 우리나라 양계업의 유통구조는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의 조성 및 운영과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Egg Board나 Broiler Council 및 통합적 생산체제를 도입하여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이룩토록 해야하며 시장구조도 생산자, 구매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토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과 같은 생계유통을 지양하고 산지에 도계장과 계란선별포장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여 경매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의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이 실천된다면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유통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오늘날과같은 투기업이 아닌 건전한 양계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長篇叙事詩集 ○

黃土峴의 햇불

安道燮 著

- 菊版/豪華洋裝/240面
- 詩文房刊
- 定價 2,000 원

● 감오년, 동학농민전쟁은 우리나라 근대 사상 가장 획기적인 장거였다. 그것은 국내외의 긴박한 狀況속에서 스스로의 역량과 결단에서 우러난 自主精神의 발골로서 길이 받들어야 할 近代의 눈뜸이다. 이 역사적 장거의 리더로서 높이 햇불을 밝힌 농민의 영도자가 바로 녹두장군 朴瑾準이다. ... 나는 이 叙事詩를 쓰면서 몇 번인가 소리없이 울고 또 몇번인가 한밤내 몸을 떨었다. 흙의 아들이요 太陽의 아들인 녹두장군은 그래서 내 피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後記에서 —

全國 有名書店에서
절찬리 판매중